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2019년 7월 31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<small>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30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small>					
배포일시	2019. 7. 30. (총 2쪽)	담당부서	가금연구소		
담당과장	천동원 소장 (033-330-9510)	담 당 자	강환구 연구사 (033-330-9553)		

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

■ 「육용종계 사양관리 지침서 및 최신 부화관리 매뉴얼」 발간

[문의] 가금연구소 농촌연구사 강환구 (☎ 033-330-9553)

- 농촌진흥청(청장 김경규)은 국내 고기용 씨닭의 생산성 향상과 종란의 부화율 개선을 위한 「육용종계 사양관리 지침서」와 「최신 부화관리 매뉴얼」을 각각 발간했다.



- 국내 고기용 씨닭 사육 마릿수는 약 829만 마리¹⁾로 추정된다. 그러나 마리당 병아리 생산 수는 110마리 정도로, 세계 평균보다 적은 편이다²⁾.

- 이번 책자에는 고기용 씨닭의 마리당 병아리 생산 수를 늘리기 위한 사양관리 방법과 부화관리 기술을 각각 소개했다.

- 「육용종계 사양관리 지침서」에는 주령에 따라 사료 섭취량을 조절해 씨알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을 담았다.

- 「최신 부화관리 매뉴얼」에는 종란의 부화율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보관 온도와 보관 기간에 따른 입란 방법 등을 수록했다.
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가금연구소장은 “본 책자는 국내 고기용 씨닭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부화율을 높이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.”고 전했다.

- 발행한 책자는 각 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(lib.rda.go.kr)에서 8월 초순부터 볼 수 있다.

1) 2017년 기준

2) 고기용 씨닭의 마리당 병아리 발생 수는 세계 평균 127마리임.